

◇ 토 론

日晷의 음에 대하여

俞 景 老
서 울 대

같이 天文學史를 공부하면서도 李殷晟先生은 日晷(해시계)를 「일귀」라고 읽었고 나는 「일구」라고 읽었다. 다른 사람들도 「일귀」라고 하는 사람과 「일구」라고 하는 사람의 두 部類가 있고 더러는 어떻게 할지 좀 當惑하는 사람도 있었다.

日前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 보낸 原稿에 「일구」라고 써 주었던 것이 初校紙에 「일귀」로 되어서 되돌아온 것을 接하고서 나 自身이 읽는 음에 대하여 自信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此際에 日晷의 음에 대하여 徹底히 調査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의 身邊에서 구해 볼 수 있는 辭典을 차례로 뒤져 보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아래에 記錄해 본다.

우선 우리나라 辭典으로는

1. 張三植 著, 「大漢韓辭典」, 省文社, 1964 初版, 1968 三版에는

晷 귀〔集韻〕矩觔切紙 ㄱㄱ Kuei

해그림자귀(日景)〔陸雲詩〕願登扶桑仰結飛晷 시각귀(刻也) (古音 ㄱ)

2. 梁柱東, 閔泰植, 李家源 監修, 「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1963.

晷 ㄱ ㉠ 그늘, 그림자(影)

귀(價) ㉡ 해시계(以表度日)

3. 新字源改題, 「漢韓辭典」, 辭書出版社, 1965.

晷 ㄱ

귀(俗)

해그림자(日景)〔韓愈〕焚膏油以繼晷 시각(晷刻)

4. 李相殷 監修,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66 初版, 1986 20 刷.

晷 ① 햇빛구, 일광 焚膏油以繼晷(韓愈)

② 해그림자구 要以晷景(漢書)

③ 그림자구 月晷呈祥(謝莊)

※ 本音 ㄱ, 귀

5. 民衆書館編輯局編, 「新字海」, 民衆書林, 1967, 初版. 1981, 10 版.

晷 구(ㄱ, 귀(本))

① 햇빛구 「焚膏油繼 晷」《韓愈》

② 해그림자구 「要以晷景」《漢書》

③ 그림자구 「月晷呈祥」《謝莊》

※ 本音 ㄱ

6. 「新字源」, 辭書出版社, 檀紀 4284(1951).

晷 ㄱ

귀(俗)

해그림자 日景 韓愈 焚膏油以繼晷, 시각(日晷)

7. 「日鮮新玉篇」, 著者刊年末評(池錫永?)

晷 해그림자(귀) 日影晷刻〔キ〕ヒカゲ, カゲ

8. 崔南善, 「新字典」, 光文學會版, 東明社, 1947 再刊

晷〔계〕正〔귀〕日景 해그림자〔陸雲詩〕願登扶桑仰結飛晷. 晷刻 시각 (紙)(°紙?)

9. 「全韻玉篇」, 涯東書館, 隆熙 3 年(1909)

晷(계)正귀 日景 晷刻 紙(°紙)

10. 崔世珍, 「訓蒙字會」, 嘉靖六年(1527)

〔時晷漏刻〕晷 히귀 : 구

다음에 日本의 辭典을 보면

11. 簡野道明「字源」, 東京北辰館刊, 1923.

晷 키 °紙 또는 紙

○ひかげ(日景) 日の光「日晷」「寸晷」「短晷」韓愈進學解「焚膏油以繼晷」

○はしらかげ(柱景) 表を立てて日を度る

○はかる(規)

12. 石山福沿編著, 「新支那大辭典」, 東京文求堂, 昭和 8 年(1933)

晷 키 Kuei 上

(1) 日影

(2) 日時計

13. 諸橋轍次著,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昭和 31 年, 43 年 縮寫版 2 刷.

晷 키 集韻 矩鮪切 °紙 또는 紙 ≪Xㄴ Kuei³.

(1) かげ 說文 晷日景也 ㄴ日咎聲〔段注〕此云晷日景也 不云日光 析言之也 以其陰別於陽 即今之影字也 左傳謂之蔭.〔張衡西京賦〕白日未及移晷已〔注〕綜日晷景也.

(2) はしらかげ 太陽の運行をはかるために樹てた竿が投射する陰影〔釋名, 釋天〕晷規也 如規劃也〔廣雅, 釋天〕晷柱景也〔正字通〕晷日景之差度也 晷者歷數所自出 其法望高處爲體 立長短二竿爲用 二竿與高齊等 度三物兩間修短若干勾股求之 寒暑短長 瞭然自見云云 即考工記 置槩眡景之法也〔周髀算經上〕夏至之日 晷尺六寸〔注〕晷影也

(3) 日ざしさはかる柱 今日時計にいふ〔玉篇〕晷以表度日也〔晉書魯勝傳〕以冬至之後 立晷測影

(4) 日ざし, 日の光り〔韓愈進學解〕焚膏油以繼晷

(5) ひあし 時〔拾遺記〕宣帝常以季秋之月 泛衡蘭雲鷁之舟 窮晷係夜 釣于臺下

(6) ひかり〔漢書高帝紀贊〕五星同晷〔注〕師古曰 晷光景也〔謝莊舞馬賦〕月晷呈祥 乾維効氣

다시 中國의 辭典을 보면

14. 「康熙字典」, 上海同文書局, 光緒甲申(1884)本

晷〔唐韻〕居洧切

〔集韻〕韻會 矩鮪切

〔正韻〕古委切

竝音 軌

〔說文〕日景也〔博雅〕晷柱景也〔釋名〕晷規也 如規畫也〔玉篇〕以表度日也〔前漢天文志〕去極遠近難知. 要以晷景, 晷景者所以知日之南北也〔正字通〕晷者歷數所自出 其法望高處爲體 立長短二竿爲用 二竿與高齊等 三物兩間修短若干 勾股而求之 寒暑短長 瞭然自見 ㄴ咎何也

日景有差也 大行有常不能不小有贏縮歲差由此生故立日景以測之 即周禮考工記 置槩晷景之法也 又〔韻補〕叶果許切〔陸雲詩〕願登扶桑仰結飛晷伊人匪存遺芳孰與 又叶已有切〔王延壽魯靈光殿賦〕葱翠紫蔚礪礪瑋瑋含光晷兮 窮奇極妙棟宇以來未之有兮。

15. 「辭源」, 商務印書館, 民國 4 年(1915) 初版 22 年(1933) 16 版.

晷 古委切 音軌 紙韻

- (1) 日景也 韓愈文 焚膏油以繼晷
- (2) 以表度日也 今謂測日景以定時刻之器曰日晷

16. 「辭海」, 中華書局有限公司, 民國 26 年. (1936)

晷 古委切 音詭 紙韻

- (1) 日景也 見說文 按月影亦謂之晷 宋書謝莊傳「月晷呈祥」
- (2) 以表度日也 見玉篇 今有日晷之制 參閱日晷條

17.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華崗出版有限公司, 民國 62(1973) 初版, 68, (1979) 4 版.

晷〔廣韻〕居洧切〔集韻, 韻會〕矩鮪切

〔正韻〕古委切

音軌 紙上聲 ㄍㄨㄟˋ

- (1) 日景也 按景即今之影字也〔說文〕晷日景也 从日咎聲〔段注〕此云晷日景也 不云日光 析言之也 以其陰別於陽 即今之影字也 左傳謂之蔭也〔文選張衡西京賦〕白日未及移晷已〔注〕綜曰晷景也
- (2) 柱景也〔釋名, 釋天〕晷規也 如規畫也〔廣雅, 釋天〕晷柱景也〔正字通〕晷日景之差度 晷者歷數所自出 其法望處爲體 立長短二竿爲用 二竿與高齊等 度三物兩間修短若干 句股而求之寒暑短長 瞭然自見 从咎何也 日景有差也 天行有常 不能不小有贏縮 歲差由此生 故立日景以測之 即考工記置槩晷景之法也〔漢書天文志〕去極遠近難知 要以晷景 晷景者 所以知日之南北也〔周髀算經上〕夏至之日 晷一尺六寸〔注〕晷影也
- (3) 因日影以定時刻之器 參見日晷儀條〔玉篇〕以表度日也〔晉書魯勝傳〕以冬至之後立晷測影
- (4) 日光也〔韓愈進學解〕焚膏油以繼晷
- (5) 時光也〔拾遺記〕宣帝常以季秋之月 泛衡蘭雲錦之舟 窮晷係夜 釣于臺下
- (6) 景也〔漢書絳傳述高紀第一〕五星同晷〔注〕師古曰 晷景也〔謝莊舞馬賦〕月晷呈祥 乾維效氣

18. 北京外國語學院英語系, 《漢英詞典》編寫組編, 「漢英詞典」, 商務印書館, 1978 初版, 1981 縮印本 香港第一版, 1983 重印(香港分館).

晷 guǐ

- (1) 〈書〉 a shadow cast by the sun.
- (2) 〈書〉 time 全晷 spare time.
- (3) sundial

19. 新华字典, 1979 年修訂會排本, 商務印書館, 新华書店, 1980

晷 guǐ ㄍㄨㄟˋ

日影 (轉)時間 日无暇晷

〔日晷〕按照日影測定時刻的儀器 也叫「日規」

위의 19 種의 辭典에 나타난 것을 整理하여 볼 때, 1) 우리나라 辭典은 대체로 本音이 「꺆」인데 慣用音이나 俗音으로는 「꺆」라고 한 것과 本音은 「꺆」 「꺆」인데 지금은 「꺆」라고 한다는 것으로 나

누어지는데, 좀 異色의으로 생각되는 것은 16世紀에 나온 訓蒙字會에 「구」로 나와 있다는 사실이다.

日本の 辭典에 나타난 日本音 表示는 우리의 音으로 正確히 고쳐 쓰기가 쉽지 않고 다만 그 속에 中國의 注音字母로 表示된 것이 參考가 되는데 kuei(上), <ㄱㄴ> kuei³로 되어 있어서 「케이」로 생각할 수 있겠다.

中國의 辭典에는 音의 反切法 表示로 居洧切(居), 矩鮪切(居), 古委切(귀)로 되어 있으나 古委切의 音을 軌(귀)라고 하고 있다. 한편 中文大辭典을 비롯한 近者에 發刊된 辭典에는 <ㄱㄴ> guei³, 또는 gui, 또는 gui <ㄱㄴ>로 되어 있어서 <ㄱㄴ>는 우리나라 張三植의 것. 日本의 辭典과 같으나 다만 k가 g로 바뀌고 guei³가 때로는 gui³로 表現되어 있다. 이것은 「케이」 또는 「귀」로 表示되는 音이 틀림없다. k, g의 區別은 우리가 「ㄱ」音을 k 또는 g로 쓰는 것과 大同小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18의 漢英辭典의 晷와 같이 gui로 發音되는 字를 몇개 골라 보면 宥(귀) 軌(귀) 度(기) 詭(귀) 甌(귀) 癸(계) 冪(본) 鬼(귀) 簋(귀) 등이다. 여기서 () 안의 音은 5의 新字海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보면 晷는 「ㄱ」 「귀」(케이 包含) 「귀」로 歸着되고 中國에서는 이러한 세밀한 區分이 좀 分明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위의 것과는 달리 「구」라는 音은 어디서 왔을까. 5의 新字海와 4의 漢韓大字典에는 어디서 「구」라는 音의 論據를 댄을까? 자못 疑心이 간다. 아마도 訓蒙字會의 系列의 文獻에서 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訓蒙字會의 「구」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내가 私的으로 李家源教授와 李佑成教授를 만나서 晷字의 音을 물었을 때 두분이 다 「구」라고 하였다. 李佑成教授는 晷의 아랫部分 咎(허물구)에서 잘못 알고 晷까지도 구라고 한 것일까 하였다. 그러면 訓蒙字會의 崔世珍까지도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崔世珍에게 失禮가 過할 것 같다. 더구나 訓蒙字會는 위의 19種의 辭典 중에서 가장 오랜 冊이다. 淸의 康熙年代와 적어도 150年의 時間差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中國의 音이 그 후에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疑心도 全然 成立되지 않는 바도 아닐게다.

우리가 中國의 音을 받아들일 때 中國에는 地方에 따라 音이 다르기도 하고 또 時代에 따라 音의 變遷이 있기도 했기에 거기서 온 影響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가지는 中國音을 그대로 發音하고자 한 우리 民族의 發音慣習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晷의 音이 어떤 것이 옳다고 斷言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의 發音慣習으로는 「귀」보다는 「귀」가, 「귀」보다는 「귀」가, 「귀」보다는 「구」가 發音하기 쉽다는 생각이 든다.

晷의 音이 장차 어떻게 歸着될 것인가? 魯迅의 小說 「故鄉」의 末尾의 말대로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自然 그곳에 길이 생기는 것이라는 식으로 落着하고 말 것인지도 모르겠다.